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113건의 형성안
래일에 사는 사람들
마석령의 새 전설

문수기능회복원 신체운동치료실에서



문수강산

5

주체103(2014)
루게 제297호 월간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랑만에 넘쳐 (♩=122)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mf C#m F#m G#7 C#m

1. 우린 누구나 - 기쁨에 넘쳐 눈부 신아침 - 즐겁게 맞네 바라
C#m C#7 F#m G#7
는꿈이 - 눈앞에 꽃 피 래 - 일 도 즐겁게 맞네 밝
f C# F#m B7 E G#7
고 - 밝아라 우리 사는 곳 원 수 님 - 그꿈이 여 인
C# F#m G#7 C#m
민 의 - 희망 - 만 복의 희망 넘 - 치 는 나의 조국 아

2. 눈비내려도 폭풍세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승리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 헤치네
환희로워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조국아

3. 은혜론 해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궁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번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차 례

창조와 변혁의 력사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매일	3
일 화	
113건의 형성안	6
건설의 번영기를 열어놓으시여	8
건설속도를 통해본 조선의 모습	9
래일에 사는 사람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2
한 녀인이 들려준 이야기	14
조선의 현실	15
올해 농사에서 장풍을 부르겠다	16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	17
대상철비생산에 큰 힘을	18
경쟁력있는 제품생산	20



방문기

떠나고싶지 않은 집	22
마석경의 해 전철	24
발명가들	29
주민들이 즐겨찾는 사진관	30
환희에 넘친 근로자들	32
보람은 어디에	34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35



조국의 품에 안겨

창조물들에 비끼 건축가의 열정	37
고향소식	
웃음넘치는 아동공원에서	38



편 지

경사에 경사가 겹친 한해였다	40
---------------------------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41
 고국의 밝은 래일을 보았다 41



고국방문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다》 42
 여론과 다른 모습을 두고 44
 신비한 나라 건설 45
 《우리 부국장》 46

중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 (2) 47

현대조선

천리마조선의 새 격사 (1) 48

민족의 향기

호박속의 통깽 50

력사인물

중사회화의 대가 김홍도 52

사화

《사람은 정직해야 해》 53

천연기념물

원산칠엽나무 54

우리 민족끼리의 깃장은 조국통일의 근본깃장 55

2중적범죄, 과거부정행위 56



상식

수명이 짧은 지역과 긴 지역의 식생활에서 차이난 점 49

조선속담 (무분별) 50

유모아

눈이 앞에 있기에 51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지난해 12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건설부 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되었다.

강습은 주체건축발전의 새로운 전환의 이정표를 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조국에서 주체의 건축예술은 어제와 오늘에 이어 더 밝고 휘황한 래일을 창조해나가도록 추동하고있다.

건축물은 크건 작건 어느것이든 다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감정, 경제발전수준과 문화수준 등을 반영하고있다. 하기에 건축물을 보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면모를 알수 있다고 말하는것이다.

오늘 조국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 인민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실려여있는가를 다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어제날 꿈과 리상으로도 미처 바라지 못 하였던 문명의 언덕우에 인민을 세워주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에 대하여 전하자면 실로 끝이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하여 인민의 행복의 터전들이 련이어 마련되었다. 하나의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형성안만 하여도 110여건이나 보아주시고 그곳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 등 여러차례 찾아주시며 건설장에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비오는 날에도 때없이 나오시여 건설자들을 창조와 혁신으로 불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국의 인민들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희세의 건축대가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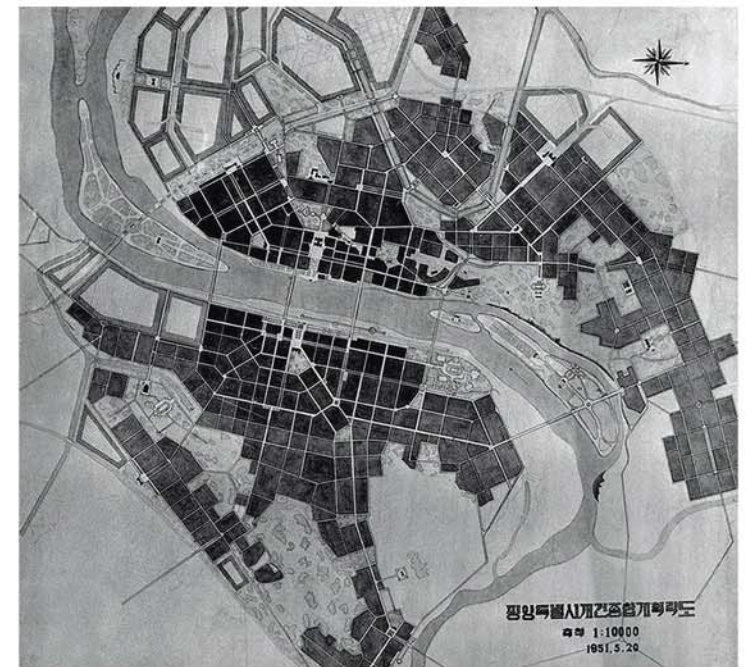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원대한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 나게 될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눈부신 조국의 오늘과 래일은 어제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일찌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체의 건축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높은 경지에도 심화발전시켜오시였다.

그에 대하여 전해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 40(195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설계일군들이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평양시북구건설총계획도를 완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조국땅 그 어디나 포연이 가실 날이 없었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작성된 평양시북구건설총계획도



천리마거리의 일부 (주체60(1971)년 촬영)

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되어 벽돌 한 장 성한 곳이 없었던 때였다.

준엄한 전쟁시기에 전승의 날을 그려보시며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보아주시며 미흡한 점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폐허우에 웅장하게 일떠설 새 평양을 조선맛이 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설계일군들을 깨우쳐주시었다.

전화의 나날에 마련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는 1952년 여름 뿔스까의 수도 와르사와에서 진행된 세계건축가들의 회의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폐허로 된 평양시전경과 전후에 일어설 새 평양의 모습이 환등으로 비쳐지고 총계획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때 회의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박수와 환호를 올리였다.

참가자들은 엄혹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승리한 래일을 확신하며 대도시건설을 계획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면서 조선인민의 무적의 힘이 어디서 샘솟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전화의 나날에 나라의 건설기술인재양성기지도 내오도록 하시고 전후에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적건축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축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평양대극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을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생활풍습, 생활감정에 맞고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다우며 견고하게 설계

하고 건설하도록 건축가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하여 전후 조선을 침략하였던 미국은 100년이 걸려도 조선이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조국인민들은 1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도시와 마을을 훌륭하게 건설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세기 80년대에만도 서해갑문,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를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건설의 전성기를 안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건축형성상 기성관례와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롭고 독창적인 시대의 걸작으로 완성시켜주시려 하나의 미완성설계도면을 마주하시고 한밤을 고스란히 지새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잡초무성한 교외의 들판길과 휘청거리는 건설장의

보통강반의 저녁



나무발판도 몸소 밟으시며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쟁책동과 고립압살책동으로 조국땅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던 1990년대 중엽 그이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완공후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그 개통을 선포하시였다.

참으로 조국땅우에 솟아오른 모든 기념비적 건축물들마다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은 오늘 그대로 기쁨의 웃음소리되어 온 세상에 전해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게 될 희망찬 래일은 결코 먼 후날이 아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 김정철은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굽어보며 환상의 나래를 펴고 년대와 년대를 넘어 비약의 시대를 날

고있다. 우리는 눈부신 조국의 래일을 신념의 눈으로 보고있다.》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건축을 배우고있는 평범한 대학생의 말처럼 조국과 인민은 더욱 번영할 래일을 설계도에 담아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향한 조선의 설계도는 나날이 새로와지고있다. 번영할 래일에로의 전진속도도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꿈을 꾸면 현실로 되는 오늘 조국인민들은 환상을 해도 조선식으로 하고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키는것, 이것이 바로 조선식, 우리 식이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세계적인 건설성과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을 창조하기 위해 마음껏 환상의 나래를 펴나가는 건축가들이다.

인민은, 조국의 건축가들은 록색건축, 지능건축에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

게 훌륭한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이 땅우에 보란
듯이 일떠세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일군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주시고 새로
운 주체100년대 주체건축발전의 휘황한 설계도
를 펼쳐주시였다.

그 설계도에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이 다 담
겨져있다.

조국이 끝없는 환상의 나라를 펴고 그 위대한
설계도를 하나씩 현실로 옮겨놓을 때 인민의 꿈
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그 설계도에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이 보인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일 화

113건의 형성안

문수물놀이장이 얼마나 희한하고 황홀하게
꾸려졌는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
을것이다. 하지만 이 물놀이장의 형성안이 몇건
이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수자를 아는 사람은 많
지 않을것이다.

그에 대하여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미림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훌륭히 일떠세울
데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뜻밖의 화제를 꺼내시는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며칠전까지 보아주신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이 109건이였는데 오늘
4건을 또 보아주었으니 113건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일군들모두가 아연해졌다.

—113건이라니? 어느새 벌써? ...

113건, 그 하나하나의 형성안을 직접 만든
설계가들조차 셈해보지 못한 수자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첫
형성안을 보고올린 때부터 《열, 스물, 서
른...》 하고 형성안의 번호를 세어가던 설계가
들도 매일같이 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작성하
다보니 어느새 백을 넘고 열을 더 넘어섰는지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설계로 한생을 보내온 머리흰 전문가들도 하
나의 건설대상을 놓고 이처럼 많은 형성안을 만
들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밤중에도 이른새벽
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들을 지도해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이 아
무리 사색을 모으고 성의를 다했어도 그 형성안
들은 그이께 만족을 드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형성안을 보

아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착상을 안겨주
군 하시였으며 때없이 건설장을 찾으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고는 형성안을 다시 작성
하도록 하군 하시였다.

그렇게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이 113건, 그러
나 형성안작성은 문수물놀이장건설의 첫 공정
일뿐이였다. 그다음은 설계도면작성, 예산타산
그리고 시공...

삼복의 찜물쿠는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단잠에 든 때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시였고 때
로는 건설장에서 동터오는 새벽을 맞기도 하신
그이이시였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문수물놀이장건
설장 현지지도보도소식이 다섯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놓고도, 9월에는 며칠사이에 두차례나
찾아오신 소식을 두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
였다.

바로 그렇게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의 준공
을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
다시 그곳을 찾으시여 아버지장군님의 리상,
인민의 꿈이 또 하나 현실로 꽃피나게 된것

이 너무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돌
아보시였다.

구불구불 뻗어간 여러가지 색깔의 물미끄럼
대들이며 형형색색의 수조들, 조약대, 인공폭포
와 묘향산,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 금시 살아 뛰어다닐것
만 같은 동물조각들...

문수벌이 좁다하게 황홀하게 펼쳐진 거대한
물놀이장의 구내를 걷고 또 걸으시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 인민
들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성대히 경축한 때로
부터 며칠후인 지난해 10월 15일, 문수물놀이
장에서는 성대한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될 순
간만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준공의 붉은 테프는 행
복을 향유하게 될 인민들이 끊었다.

본사기자





건설의 번영기를 열어놓으시어

오늘 조국땅에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와 인민들의 편의가 보장된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창조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도시설계부문에서 일하는 저는 그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무심히 바라볼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머리속에는 잊지 못할 그날이 되새겨지곤 합니다.

주체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반에 새롭게 일떠선 해당화관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당화관의 여러곳을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습니다.

어떤 곳을 돌아보시면서는 개성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꾸렸다고 평가도 해주시고 어떤 곳을 돌아보시면서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바로잡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건축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도에 저희들은 경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늘 해당화관을 돌아보니 모든것이 만점이라고, 특히 설계와 시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말 잘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저희들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사실 해당화관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봉사기지로 일떠서게 된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건설과 관련한 자료도 보아주시며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해당화관을 설계한 저를 비롯한 설계집단과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화관과 같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그이를 모시고 동행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또 하나의 건축대학을 나온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건설된

창조물들은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그이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시어 온 나라를 건설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건설이 시작된 해에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건설대상수나 공사규모로 볼 때 몇년 지어 10년이 걸린다면 건축물들이 몇달 혹은 1년남짓한 기간에 솟아올랐습니다.

건설속도뿐이 아니었습니다. 선 편리성과 선 미학성의 원칙이 설계로부터 시공, 주변환경 조성 등 건설의 모든 공정과 요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구현된것이 지난해의 창조물들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일떠선 건축물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앞서나 가시며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축예술가적자질과 창조력, 열정의 산물입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올해에도 조국땅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명의 기쁨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저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세계적수준을 통과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건축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평양도시설계연구소
기사장 김철웅

건설속도를 통해본 조선의 모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1년 지어 단 몇개월사이에 그 모습이 새롭게 달라지는것이 오늘 조국의 현실이다.

7개월동안에 21개호동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 학교, 공원들을 갖춘 은하과학자거리건설,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다는 방대한 공사를 1년남짓한 기간에 끝낸 마식령스키장건설, 9개월동안에 10만 9 000㎡에 달하는 부지에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러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을 갖춘 문수물놀이장건설과 연 건축면적이 3만 2 800㎡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옥류아동병원건설...

이것은 지난해 조국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민들에게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고 조국의 모습을 보다 새롭게 변모시킨 비상한 건설속도는 조국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년대들마다에 아로새겨져있다.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의 기쁨속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일제가 15년간으로 잡고도 끝내 할수 없었던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이라는 기간에 완공하였다.

그때부터 조국땅에는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새 나라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로 일떠세우려고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1950. 6—1953. 7)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하던 조선을 새롭게 일떠세우는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전후 평양시건설의 나날에 창조된 새로운 건설속도 평양속도는 14분에 주택을 한 세대씩 조립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그때 조국에 왔던 한 외국인은 평양에 머무른 6일동안에 매일 한층씩 올라가는 살림집을 사진찍었는데 돌아갈 때에는 완공된 6층짜리 살림집사진을 가져갔다는 일화까지 생겨났다.

상상하기 어려운 건설속도는 1950, 1960년대에 이어 1970, 1980년대 등 년대와 년대를 넘어

창조되었다.

지난날의 빈민굴(토성랑)자리에 일떠선 천리마거리와 락원거리도 불과 반년사이에 건설되었으며 주체사상탑, 개신문과 같은 대기념비들은 2년도 못되는 사이에, 창광거리와 문수거리,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비롯한 한개 도시와 맞먹는 많은 거리들은 기존공식을 타파하며 짧은 기간에 완공되어 평양번영기를 열어놓았다.

수도건설만이 아니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밖에 없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힘과 기술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발휘한 조국인민들이었다.

불과 5년동안 20리날바다우에 3개의 갑실과 36개의 수문을 가진 대규모언제를 쌓은 서해갑문건설시기에 창조된 80년대건설속도, 새로운 서해갑문건설속도만 놓고보아도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지닌 비상한 정신력과 함께 건설속도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있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새 세기에도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 안변청년발전소, 평양—향산관광도로, 광명성제염소, 만수대거리, 해방산거리, 창전거리...

질풍같은 창조와 변혁의 건설속도로 지나온 년대기들을 빛나게 장식한 건축물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참으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거창한 창조와 영웅사시적화풍을 새겨온 건설속도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무궁무진한 정신력으로 창조하여온 애국의 분과 초였다.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앞당겨가는 오늘의 건설속도는 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보여주는 힘찬 발걸음이며 더욱더 눈부실 내 조국의 래일을 환히 비추주는 거울로 간직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이 있어 조국땅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비상한 건설속도가 래일에도 변함없이 계속 창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대철

레일에 사는 사람들

오늘 조국땅 어디서나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는 건설투쟁에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맡고있는 역할은 자못 크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지난 기간 연구원은 주체건축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완성하여 설계와 환경위생, 건재개발사업에 도입하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권위있는 건축설계 연구집단인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주체사상탑, 평양산원과 창광원, 류경호텔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국가신물관과 창전거리,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룡라품등어관 등 100수십여개의 대상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상들에 대한 설계사업에도 참가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공기조화용랭수기, 여러가지 형식의 열회수기, 록색조명장치, 천연광물물정화장치 등 우리 식의 환경위생, 공기조화설비들과 특색있는 건재들을 개발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공공건물, 살림집건설에 도입하였다.

이 나날에 연구원에서 연구설계한 건축물들과 제품들은 전국과학기술축전, 5. 21건축축전을 비롯한 국내축전들은 물론 제22차 제네바국제발명전람회, 제13차 평양국제청년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등 여러 국제축전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지나온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연구원의 설계가, 연구사들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이 마련된 레일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선진적인 설계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고 적극 활



새로운 설계형성안을 놓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용하여 건축형성설계로부터 도면인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식의 새로운 건축프로그램들을 개발도입하여 건축설계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고있다.

실력이 높아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는 자각으로 연구원의 성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짬만 있으면 습작련습을 진행하고 조각, 공예, 문학예술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소유한 다방면적인 박식가가 되기 위

하여 노력하고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꾸준한 파악과 지난 시기의 경험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실천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건축물설계의 질을 높여가고있다.

자주 조직되는 새로운 설계형성안과 도안들, 창안품들에 대한 협의회는 그 질적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나 창작적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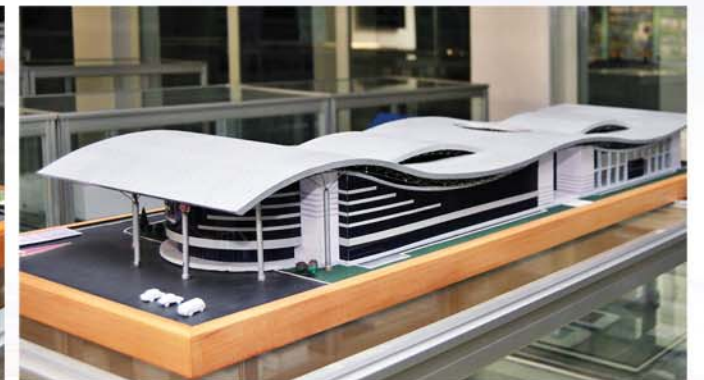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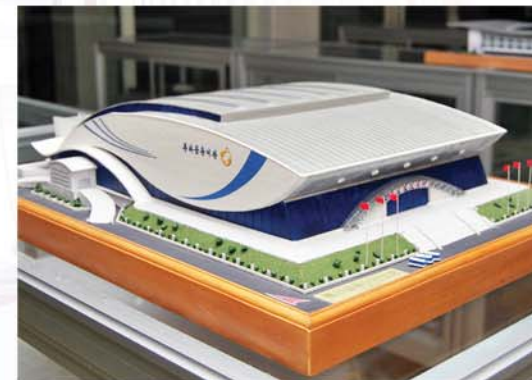
이곳 연구원의 한광수는 말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 미감에 맞으면서도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되게,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하고 완성하는 것, 이것이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척후병이라고 할수 있는 연구집단모두의 한결같은 리상이고 목표이다.》

글 본사기자 강 국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설계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간다.



현실에 도입된 건축모형들의 일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전호에서 계속)

우리 나라에서는 무저항주의가 개량주의로 표현되었다.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3. 1인민봉기후 적극적인 항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려는 혁명적인 립장으로부터 리탈하여 교육진흥운동과 민족산업진흥운동을 민족운동의 최대의 기치로 삼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자질과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실력양성운동을 맹렬하게 벌리었다. 민족운동의 중심지도층을 이루고있던 근대지식인들은 토산품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과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장려운동을 벌리었다.

이 운동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토산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저고리와 조선식두루마기를 입고 지냈다. 그는 명함장도 국산한지로 만든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것을 신지 않고 조선것을 신고 다니었다.

민족개량주의를 류포시키는데서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론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수 있다.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것은 리광수가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처럼 여기고있는 점이었다. 나는 우리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이라고 여긴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위정신은 일찌기 아세아만방에 맹위를 떨치였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것이지 본질적인것은 아니었다. 그 부차적인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수는 없었다.

리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마치 조선사람들

이 《렬악한 민족성》때문에 망한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것은 락후한 민족성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무능때문이었다.

조선민족이 《렬등》하다고 개탄하는 리광수의 론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론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 민족을 《렬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렬등》하기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개조론》은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에게 보내는 리광수의 공개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코앞에서 빼젓이 울방자를 틀고앉아 련애소설들을 써내고있었다.

소설가로서의 리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때문이다. 그는 우리 나라 현대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으로 하여 리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옛보이던 개량주의적요소가 완전한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론문에 등장한것이다.

민족운동을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유도한 근대 지식인들은 심지어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사람이 주관하는 민립대학까지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독립인재양성의 온상으로 될수 있는 민립대학의 설립을 허가 해주지 않았다.

비폭력적인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일제의 저항에 부딪치었다. 조선사람이 일본이 내려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제만 사용하는데 대하여 총독부가 눈을 감아줄리는 만무한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일화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동으로 보고 독을 품고 방해하였다.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은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민족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침

략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산업의 발달을 용허하지 않으리라는것은 초보의 초보에 속하는 상식인데 기업을 창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개량주의길로 타락한 민족운동자들은 제국주의속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들이 무력항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문화운동으로 이행한것은 투쟁방법상에서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공존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었다. 평화적공존이나 타협속에서는 어차피 변질현상이 생기기마련이다. 실지로 개량주의자들이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날 민족운동대렬에서 도피하든가, 전향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

자강론의 변형인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준비론이라고도 함)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던 리론적지렛점이었다.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사람들만큼 때뱃이를 해야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수 있을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강연장의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의 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있는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물론 그의 강연내용은 일구일언이 다 애국의 정신으로 관통되어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의욕을 거세할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주장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는 나도 동감이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수 없었다. 실력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야지 그자체가 혁명전체를 대신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령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중국적인 승리의 길

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령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 국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수 있겠는가. 또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겠는가.

나는 강연을 듣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었다.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연사가 말하는 령강이란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수 있는가?

질문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었다. 반발심에 못이겨 단호하게 서면질문을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막상 사회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쪽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질문때문에 강연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호를 숭배하고있는 독립운동자들과 수백명의 청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였다. 안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진도 서면질문의 장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할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것이 아니였다. 내가 안창호에게 서면질문을 들이댄것은 그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잠깐만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사상을 그이상 더 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대신배로 존경받는 안창호에게서 그가 청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침이나 방략을 듣고싶은 욕망을 억누를수 없었기때문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한 녀인이 들려준 이야기

얼마전 어느 일요일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서였다.

우리의 옆을 지나가던 초급 중학교에 다니는듯 한 여러명의 학생들이 문득 우리에게 신원동 3인민반 김설윤아저씨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낫모를 김설윤의 가정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동하여 학생들과 함께 그 가정을 찾았다.

우리가 집주인인 녀인(리경애)의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서니 첫눈에 벽에 걸려진 한장의 사진이 안겨왔다. 그가 바로 녀인의 맏아들인 김설윤, 조선인민군 해군의 어느 한 군부대 구잠함 233호 중위였다.

우리는 그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애국렬사증을 바라보며 녀인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10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적들의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해상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구잠함 233호는 출동명령을 받고 출항의 닻을 올리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은 퍼그나 흘렀지만 함의 성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당시 해군부대용사들이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으신듯 해당 부문 일군에게 몇번이고 확인하시였다. 그러

시고는 천길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용사들의 시신을 찾아내어 장례식을 잘해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리고 용사묘의 형성안을 거듭 보아주시며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묘비들에 용사들의 돌사진을 붙일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그후 11월 1일, 그이께서는 평양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꽃송이를 손에 드시고 완공된 묘를 찾으시였다.

한걸음, 한걸음...

묘비들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걸음은 무척 무거우시였다. 생전에 그토록 활기에 넘쳐있던 젊은 해병들의 모습이 돌사진이 되어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평시에 《청춘의 사랑도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릉성번영속에 있거니》라고 시를 지어 읊던 군관 백철룡,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추천을 받고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대에 입대한 김설윤, 함의 막내전사인 사랑스러운 18살의 홍혁성...

그이께서는 끝내 걸음을 멈추시였다. 비통함을 정녕 참을 수 없으신듯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불태우며 복무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역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 내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이어 이윽도록 묘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용사들의 묘주,

그것은 그대로 조국을 위한 길에 한몸바친 전사들의 삶을 후세에도 끝까지 보호해주시려는 최고사령관, 그이의 마음이 시였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최고사령관이라는 군직보다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조국을 지키는 전우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시는 그이이다.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보다 병사들을 절대하시오 아무리 위험한 최전연초소라도 서슴없이 찾아가 병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돌보아주시는 그이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완공단계에 있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고...

어느 사이 녀인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흐르고 또 흘렀다. 그는 벽의 사진을 쓸고 또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진도 ...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용사들이 생전에 찍은 사진들을 한장한장 고르시며 정말 많은 품을 들여 이렇게 훌륭히 현상해주시였습니다. 사진이 완성된후에는 자신께서 직접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당(조선로동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며 <설윤아—>라고 찾으면 금시라도 내아들이 <어머니—> 하며 이 품에 안겨들것만 같습니다. ...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에 할아버지는 앞으로 눈속에서도 빛나라고 눈 설자에 불을 운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는데 설윤이의 생이 이렇듯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생의 삶으로 빛나게 된것은 진정 원수님의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집을 찾아오고있습니다. ...》

녀인의 이야기는 눈물속에 끝을 흐리고야말았다.

그 걱정속에 방에서는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리었다. 김설윤용사가 군사복무시절 즐겨불렀다는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였다.

...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한생이 사라진대도 어머니조국은 기억하리라 그대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본사기자 홍정혁

조선의 현실

일본에서 도서 《김정은정치 의 오늘》(로작으로 보다)이 발행되였다.

필자는 일본 에이메현대조선 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77살)이다.

그는 이미 《강성대국에로 나가는 조선》(2011년 발행)을 비롯하여 10여종의 조선문제와 관련한 도서를 집필한바 있다. 그는 오래동안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주체혁명의 계승과 발전, 완성이며 개인적 권력의 《후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왔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뜻밖의 서거후에도 《조선은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왔다.

나다 다카시는 《이 원고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가최고직책에 취임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해에 발표하신 로작에서부터 공화국의 현재와 사회주의정치를 리해하기 위해 편집한것이다.》라고 이번 도서의 집필의도를 밝히었다.

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요로작과 용어해설, 로작의 배경, 그이의 주요활동일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필자는 도서에서 김정은시대에 이른 조선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과 반미대결전

에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시대와 력사, 국제정세에 대응해나가는 공화국의 정치자세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비롯한 13건의 로작을 통하여 해설하였다.

필자는 도서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는 반공화국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 그리고 옳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양을 돌아볼것을 권하는것으로 글을 마감하였다.

윤흥기

올해 농사에서 장촌을 부르겠다

— 농업성 국장 주철규와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농업부문에서는 더 높은 생산성과를 안아 오기 위해 년초부터 부글부글 들끓었으며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고리라고 볼수 있는 모내기철에 들어서고있다.

국장: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였다. 하기에 국가적인 투자와 함께 전국적인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여기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의 열의 또한 높아져 전반적인 농사차비가 계획대로 힘있게 추진되였다. 성에서는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총발동시키는것을 농업생산지도의 총적방향으로 내세운데 맞게 일군들이 농업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기자동무도 말하다싶이 한해 농사의 성과는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모든 단위에서 이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영양알모와 영양랭상모, 속성모, 단지모를 비롯한 실리있는 모기르기방법을 자기 단위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현재 전반적인 모판들의 모상태는 아주 좋다. 이미 토양의 린, 카리, 규소성분보충, 작물배치와 종자공급의 개선, 저수확지에서의 소출제고, 겹재배를 비롯한 합리적인 두벌농사방법 도입 등을 중점문제로 정하

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데 따라 농업부문에서는 모내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실지 각지 농촌들에서는 벼모판종합영양제(육모제)에 의해 튼튼하게 길러낸 모를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제기일에 와다다 널 일 정계획을 세워놓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기자: 과학적인 영농방법은 곧 주체농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체농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다.

국장: 옳은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높고 안정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이며 집약농법인 주체농법을 창조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여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였다.

부침팍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주체농법과 선군시대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다.

기자: 지난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조관리제를 잘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생산열의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국장: 그렇다. 땅을 다루는것



도 사람이며 농사를 짓는것도 사람이다.

우리 나라에서 분조관리제는 주체54(1965)년 5월 11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시여 몸소 창시하여주시였다. 분조관리제는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한다.

지금 농장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

각지 농장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밝혀져있는대로 분조관리제에 의한 포전담당책임제를 옹바로 실시하며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리해관계, 생활상요구를 옹게 타산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농장원들의 주인된 자각과 생산열의를 적극 높여 알곡생산량을 더 늘이는데서 농업부문 일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이다. 뿐만아니라 남새와 과일, 고기생산도 늘어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 * *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원래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요한 기간공업으로서 이 부문의 발전에 따라 경제의 전반적발전이 좌우되게 된다.

금속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생산보장할수 없고 대규모의 건설도 할수 없다.

화학공업도 마찬가지이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농업과 경공업, 건설, 통신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화학제품과 자재들을 성과적으로 생산하여 경제전반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올해 조국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들어쥐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건설부문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놓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보다 먼저 금속, 화학공업에 큰 힘을 넣어 농업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

비료, 농약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고 해도, 건설에서 높은 속도와 최상의 질을 보장하자고 해도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혁신적성과와 양양이 일어나야 하며 발전의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지금 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조건에서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철도운수는 물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본건설과 농업, 경공업,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질실히 요구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철강재를 비롯한 금속자재와 화학비료, 화학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와 기타 기초화학공업제품들이다.

그러므로 금속, 화학공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나갈때만이 경제강국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금속, 화학공업이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라면 그 발전의 기본방향, 종자는 주체화, 현대화이다.

금속,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자체의 기술과 실정에 맞게 늘어나는 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안전한 토대우에서 전반적인민경제를 힘있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오늘 조국땅에는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과 부문구조, 기술적토대가 그쯘히 마련되어있다.

금속,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속 공고히 하며 적극 활용해나가는데 바로 경제건설분야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

너도나도 떨쳐나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역척의 쌍기둥이 되자, 이것이 금속, 화학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닌 투쟁정신이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제철, 제강, 압연의 모든 공정들을 우리 식의 생산체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주체비료, 비닐론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며 스프, 건질사, 인견팔프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여러가지 화학섬유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와 성과를 가져올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광삼

대상설비생산에 큰 힘을



지금 조국의 그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들고 경제강국건설로 들끓고있다. 그가운데는 설비생산으로 힘차게 용을 쓰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도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전국각지의 중요단위들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발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고있다. 돌이켜보면 기업소는 창립후 수십여년간 수많은 중요설비를 만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 25—1953. 7. 27)에는 미제의 폭격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자동차발전기 등을 생산보장하여 전쟁승리에 기여하였고 전후에는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변압기와 전동기, 배전반과 같은 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나라의 복구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사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1990년대에도 전국각지의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발전설비들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한 기업소는 해마다 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었다. 최근년간에는 기업소안의 발전설비조립직장과 대상설비조립직장 등에서 5축동시조종수력타빈날개가공반 제작기술을 비롯한 앞선 기술들을 연구도입하고 16m타닝반과 같은 대형설비들의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에서 큰 실적을 이룩하였다. 그렇게 만든 설비들이 나라의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져 은을 내고있다. 기업소의 발전에는 절세위인들

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웠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40여차례,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10여차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곳을 찾으시였다. 그 나날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만들어야 할 생산물로부터 종업원들의 생활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안로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우가아래를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현장에서의 기술협의회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고 기업소로동계급이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기사장 신상식은 말하였다. 《우리 기업소의 정문에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공장이라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가 모셔져있다.

우리는 앞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고 기술혁신에 힘을 집중하여 보다 성능높은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일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친다.



경쟁력있는 제품생산



비로도직장에서

평안북도 박천군에 박천견직공장이 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장은 주체37(1948)년 8월에 조업하였다. 공장에는 1직포직장, 피복가공직장, 사출직장 등 여러 직장이 있다.

최근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파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는것을 기업전략의 중요항목으로 내세우고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데트론원료에 의한 담요, 비로도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제품의 종수를 늘이고 합격품의 비중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공장일군인 장승관은 말하였다.

《소비품의 질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우리는 공장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이 과학기술이차 제품의 질보장이며 생산장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나가고있다. 인민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

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종업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

담요직장과 비로도직장이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담요직장의 종업원들은 담요천제직에서 털높이를 규정대로 보장하고 날염공정에서 날염오염으로 인한 불합격비중을 줄이는것과 함께 기모공정에서 장력에 의한 털굴곡현상 등을 없애기 위한 공정별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공장의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새로운 문양들을 개발하고 면적의선열처리기를 제작함으로써 담요의 질을 개선하고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새로 개건된 비로도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지는데 맞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종업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하여 기대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매주 한번씩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기대들에 정통하도록 하며 신입공과 기능공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작업조직을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비로도직장의 생산자들은 폭출진조기에 털세움로라를 만들어 설치하고 공정간연계를 밀착시킴으로써 비로도의 질을 훨씬 더 높였다.

지난 시기 단순히 치마저고리 천을 비롯한 옷감용비로도만 생산하던 직장에서는 현재 의자천, 무대막천 등 여러가지 품종의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은 제품도안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매 공정에 따르는 정확한 기술적지표들을 선정하여 생산이 편파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있으며 데트론에 의한 새 제품개발사업을 추진시켜 비로도의 품종을 늘이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마안산》담요와 비로도제품들은 질이 좋은 것으로 하여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와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질 좋은 비로도옷감과 담요를 생산하고있다.



떠나고싶지 않은 집



변모된 문수지구의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담던 우리에게 문수물놀이장과 함께 또 다른 건축미를 안고있는 하나의 건물이 안겨왔다.

문수기능회복원이었다. 직업적호기심으로 하여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마침 우리는 정문앞에서 이곳 일군인 조황건을 만날수 있었다.

《문수기능회복원》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지나 홀에 들어서니 하늘의 별무리가 통채로 내려앉은듯 천정에서는 조명들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아래에는 대리석과 타일로 색조화를 이룬 기둥들, 독특하고 은근한 색깔로 부각장식을 한 바닥, 복도와 방을 경계짓는 대형유리칸막이벽들과 출입문들 등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고 훌륭하여 극장홀을 방불케 하였다.

걸음을 땔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는 말하였다.

《그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회복원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기능회복원건물을 몸소 발기하신 원수님께서서는 건설형성안과 설계안들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었습니다. 이 원형홀도 원수님께서 설계안을 10여차례나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어 꾸려진 것입니다.》

깊어지는 생각속에 우리는 기능회복원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감탕, 파라핀치료실과 물리치료과였다.

그중에서도 물치료실이 특색이 있었다. 30~40℃의 온도를 보장하는 두개의 큰 치료용수조와 어린이치료용수조, 물안마, 색깔치료 등 여러 치료효능을 가진 개인용치료수조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있었다.

수중보행승강기며 각이한 기

능을 가진 치료설비들과 여러가지 용도의 한증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골관절계통의 질병환자들이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근력단련을 할수 있는 각종 현대적인 기재들이 갖추어져있는 정형외과기능회복치료과의 여러 치료실에도 들러보았다.

어느 한 치료기구가 이채로 왔다.

신체운동치료실에서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우리에게 과장 김현주는 말하였다.

《이 기구는 레드코드치료기입니다. 치료와 운동,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다기능기구입니다.

방법사의 방조밑에 능동, 피동운동을 배합하여 끈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환자의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운동을 원활히 할수 있게 해주는 이 치료기구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 다른 나라에서는 돈많은 사람들이나 리용하고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복원에서는 저렇게 누구나 돈 한푼내지 않고 마음껏 리용하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여기에 왔던 어느 한 외국인도 이런 치료기구는 자기도 처음 본다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기쁨의 목소리는 신체운동치료실, 장애자들이 사륜차에 앉아 룡구며 탁구를 할수 있게 꾸려진 운동치료실, 아동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과 작

업치료실,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지능지수를 높여주는 언어 및 심리치료실들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2층에 꾸려진 심장기능회복치료과며 입원실, 대중체육실과 면담실 그리고 고려치료과, 물리치료과들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간호원구급호출기, 다기능환자감시기를 비롯하여 환자들이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입원실에서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산다는 김사현을 만나 보았다.

그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돈많은 사람들만 쓰는 희한한 설비들에다 살뜰한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의 성의있는 치료를 받아 오래동안 고생하던 저의 병도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있으면 퇴원하게 되는데 솔직한 말

로 여기를 떠나고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진정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뿐아니라 마음까지도 정화시키는것으로



기능회복치료를 받고있다.

하여 떠나고싶지 않은 집, 문수기능회복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마식령의 새 전설

주체102(2013)년 12월 31일 마식령스키장 개장소식이 전해졌다. 그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산발들에 줄줄이 뻗어간 스키주로를 따라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흰눈덮인 겨울철에 스키운동을 하는 광경은 마식령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으로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잠에서 깨어난 마식령

말도 힘들어 쉬어넘는다는 경이라 하여 이름붙은 마식령은 강원도에 있다.

마식령에는 피나무, 참나무, 박달나무, 소나무들이 울창하고 고사리, 고비, 머루, 다래 등 산나물과 산과일들이 많다.

산세가 험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고 새소리와 물소리만 유행하던 마식령에 스키장건설의 발파소리가 울리었다.

10개의 스키주로와 호텔, 봉사 및 숙소, 직승기착륙장과 삭도를 비롯한 건설대상만 해도 근 60개...

건설은 방대하였다. 거기에 마식령의 험산준령과 고산지대의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여야 하는 등 난관 또한 이만저만 아니었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스키장을 단숨에 일떠세울 기세로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그들은 가파로운 산발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오르내리면서 스키장건설의 기본대상인 스키주로들과 대화봉(1 370여m)도로를 3개월남짓한 기간에 닦아놓았다.

폭우와 폭설은 군인건설자들

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였다. 건설자들은 자동차들이 장마비로 맥을 추지 못하면 감탕길로 끄는 발구를 창안하여 공사용자재를 운반하며 건설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폭설로 길이 막히면 대형, 중소형썰매들을 만들어 중량이 천수백t이나 되는 삭도설비들을 불도젤로 끌어올리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려는 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10년이 걸린 다던 방대한 스키장건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손색없이 완공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의 나날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현장을 다섯차례나 찾으시여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마식령지구를 찾으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모든 건설대상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손색없이 꾸리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말하였다. 《마식령지구에 오늘과 같이 희한한 창조물이 일떠서게 된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발기,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입니다.》

마식령의 천지개벽을 두고 사람들은 말한다.

오랜 세월 굳잠에 들었던 마식령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다고.



마식령의 새 모습

마식령스키장은 교통이 편리하며 스키장과 호텔,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들, 직승기착륙장

등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그리고 훌륭하게 갖추고있다.

거대한 면적에 펼쳐진 스키장에는 초급, 중급, 고급주로를 비

롯한 10개의 스키주로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세계급의 스키경기

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다. 스키주로들중에는 길이

5 000m이상되는것도 있다.

스키장정점인 대화봉에서 뻗어내린 스키주로들은 아찔한것과 초학도들이 리용할수 있는 단



순한것, 주로가 가파로운것과 완만한것, 긴것과 짧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이루어져있다.

대화봉의 정점에 서면 언제든 눈포를 쓸수 있게 준비된 4개의 호수와 호텔을 비롯한 스키장 전경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장쾌한 해돋이순간에 다시 오르고싶은 욕망이 솟구치게 한다.

어린이들과 로인들, 녀성들에게 눈세계의 즐거운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썰매주로와 눈놀이장, 스케트장도 있다.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각이한 용도의 썰매도 언제나 준비되어있다.

흰눈의 세계가 펼쳐진 스키장에는 건물안에서만 볼수 있는 승강기도 있다. 줄줄이 흐르는 삭도들과 함께 특색있게 설치된 수

평승강기, 연속 오르내리는 눈오토바이들, 쉬임없이 주로들을 달는 눈포와 눈다짐차들의 모습은 스키장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해주고있다.

지난해 12월말 개장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시고 마식령의 정점인 대화봉에까지 오르시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삭도(당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험중이었다.)가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있다.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의료봉사시설들은 물론 여러 주로에는 스키장에 온 손님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 휴식과 식사를 할수 있는 휴식장들도 꾸려져있다.

삭도와 눈오토바이들을 타고 대화봉을 오르내리며 줄줄이 뻗어내린 스키주로들과 산골속의 궁전같은 마식령호텔 등으로 장관을 이룬 스키장의 전경을 부감하는것도 좋지만 아름다운 조명이 비치는 주로에서 스키와 판스키 등을 탈수 있는 저녁은 손님들의 호기심을 더욱 끌어당기고있다.

자연풍치와 어울리는 마식령호텔 또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두개 호동으로 이루어진 호텔에는 백수십개의 손님방이 있으며 근 350명을 수용할수 있다. 호텔에는 여러 식사실과 커피집, 수영장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마식령의 새 모습은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쳐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쾌하기 이를데 없다. 차디찬 대기를 헤가르며 지쳐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함께 스키를 타고 내달리는듯 한 심정에 휩싸이게 된다.

신바람나게 지쳐내린 사람들이 저지마다 기분이 상쾌하다고, 꼭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스키는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우는 좋은 운동입니다. 스키를 타고 주로를 달리고나면 쌓였던 피로가 씻은듯 사라지고 담이 커질뿐아니라 생활에 대한 희열과 랑만이 막 넘쳐납니다.》



청소년학생들의 스키야영



마식령에 넘치는 웃음소리

마식령스키장이 문을 연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정점에서부터 주로를 따라 스키를 타고 눈갈기를 날리며 지



마식령호텔의 일부

대화봉정점에서 스키탈 차례를 기다리는 청춘남녀들로 붐비고있을 때 아래에서는 스키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로 흥성인다.

스키선수나 된듯 제법 지쳐나가는 청년, 스키를 타고 얼마나가지 못하고 눈우에 넘어지는 사람, 그 모습이 우스워 배를 그려주고 웃는 사람들...

한 청년이 스키를 타는 재미도 좋지만 구경하는 재미 또한 이룰데 없다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 희한하고 훌륭한 스키장의 주인은 자기들이라는듯 어른들에게 뒤질세라 스키와 썰매타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모습 또

한 이채롭다.

서로 눈을 뿌려주며 즐겁게 눈놀이를 하는 처녀애들이며 스케트를 타고 좋아라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골안에 울려 퍼진다.

곳곳에 꾸러진 스키장과 휴식장들에서 터치는 웃음소리들이 마식령지구의 산판에 넘쳐난다.

마식령스키장을 참관한 영국 《고려려행사》 부사장일행은 지난 기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주최한 나라들의 유명한 스키장들을 많이 돌아보았다, 조선의 스키장은 그보다 더 훌륭하며 마식령호텔은 흠잡을데없이 다 완벽하다, 스키주로와 봉사시설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어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 《우리려행사》 사장은 이렇듯 훌륭한 일류급 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니 놀랍기만 하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대략 수억대의 자금이 들었다고 보아 지는데 이것만 보아도 조선의 힘이 대단하다는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촬영한 마식령스키장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 전 송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계속 문의해오고있다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고희진

발명가들

평양시의 락랑구역연료사업소는 구역안의 주민들에게 땀감을 봉사하는 단위이다.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 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덤혀주는 심정으로 나라의 자연 부원을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사업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리과대학의 교원과 대학일군이 이곳을 찾아왔다.

새로운 저열탄연소첨가제를 현실에 도입하자는데였다. 그것이 도입되면 발열량이 낮은 탄이나 연재 등을 얼마든지 주민용땀감으로 쓸수 있게 된다는것이였다.

사실 사업소로서는 국가에서 주는 땀감을 주민들에게 공급만 하면 되였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성과를 외면할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사업소내에 과학기술증시열풍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그 직접적담당자들로 키우자.)

이것이 이곳 일군들의 결심이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적극 호응해나섰고 온 사업소가 첨가제 도입에 떨쳐나섰다.

실험실이 갖추어지고 연구사업에

쓰일 천연광물질재료들, 각이한 산지에 따르는 저열탄과 연재, 버력탄들이 실려왔다. 한가지의 천연광물질재료를 얻기 위해 이 지방에 가보고 또 그것으로도 안되면 저 지방의것을 가져왔다.

실험과정에 노동자들속에서 첨가제의 효능을 더 높일수 있는 착상도 나왔다.

첨가제에 의한 각이한 저열탄, 버력탄, 연재의 효과성이 밝혀지고 실지 땀감으로써의 리용적가치와 기술적특성들이 확정되였다.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고심참담한 수개월간의 노력끝에 첨가제의 현실도입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나라에서는 이 연구도입정형을 료해하고 사업소에 천연광물질재료에 의한 저열탄연소첨가제생산기지를 꾸리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배인 김희옥과 노동자 윤경선 등 종업원들은 곧 저열탄연소첨가제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기지건설에 달라붙어 완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새로운 저열탄연소첨가제도입과정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에게 과학기술의 눈을 틔워주고 결심하고 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김희옥은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장성철이 이미 연구한 새로운 원료에 의한 착화제생산에 대한 안을 내놓았다.

김정규 등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반영이 대단하였다. 특히 녀성종업원들은 《한두장의 종이로 탄을 살리다니.》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새것의 탄생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장성철은 신심을 잃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였다.

드디어 지난해 주민들의 편리가 보장되고 환경오염이 없는 실용적인 착화제가 연구완성되었으며 사업소에 착화제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물질적대대가 마련되였다.

나라에서는 첨가제생산에서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한 김희옥에게 2. 16과학기술상 증서를 수여하였다. 장성철과 윤경선은 새 과학기술도입증을 받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원선



지혜를 합쳐간다.



주민들이 즐겨찾는 사진관

평양시 창전거리에 있는 은정종합봉사소 사진관에서 책임자로 일하고있는 조혁철은 사

진을 잘 찍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창

전거리 사진관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조혁철을 두고 하는 소리이다. 그의 사진기술

은정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일부

에 섰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생의 기념으로 되겠다.》며 만족스러워 한다.

그는 최근에만도 《마음껏》, 《룡구름》 등 많은 사진을 찍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좋은 사진을 찍을수 있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대지에 신록이 질어가던 주체101(2012)년 5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원수님께서서는 개업준비를 하고있던 이 사진관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며 책임자에게 묻기도 하시고 사진관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과 인민들에게 좋은 사진을 찍어줄데 대한 믿음어린 과업도 주시였다.

조업준비로 어설픈 곳이 많은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진관을 찾아주신 그날의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조혁

철에게 사진기술을 한계단 더 높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책임자가 자기의 결심을 실천해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오랜 사진경험을 가진 사진사 조종수였다. 그는 미술의 효과를 사진촬영에 구현하여 책임자인 조혁철이 훌륭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힘껏 떠밀어주었다.

조혁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결혼식사진, 돌사진 등을 정말 인생의 기념이 되게 사진학적요구를 잘 살려 찍어주고있다.

오늘 이곳 사진관으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촬영실에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환희에 넘친 근로자들



외국 손님들도 5. 1절을 함께 즐긴다.

5월 1일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의 근로자들은 크나큰 긍지를 안고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이날이면 조국땅 그 어디서나 근로자들의 환희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자기들의 힘과 열정으로 아름답게 변모시킨 공원, 유원지들과 창조와 위훈을 떨쳐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체육유희오락경기로 흥성인다. 조국의 수도 평양의 개선문광장,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등에서도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공연무대가 펼쳐져 이채를 띤다.

여러 경기장, 체육관들마다에서는 체육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는데 특히 축구, 배구, 씨름, 바줄당기기 등에 대한 응원열풍은 그대로 근로자들의 단합된 힘의 과시로 되고있다.

해마다 그리하듯 지난해 5. 1절에도 기업소, 공장파 농장, 공원과 유원지, 마을 어디서나 예술공연과 체육유희오락경기로 들썩하였다.

평양과 희천, 북창의 전력생산자들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철강재생산자들, 강동파

안주지구 등의 탄부들은 바줄당기기, 집단달리기로 열을 올리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강계포도술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들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고산, 룡전, 덕성과수농장 등 경공업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또한 그칠줄 몰랐다.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부문 지식인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를 높이 들고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차게 벌려갈 일념안고 5. 1절을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 1절을 맞으며 진행된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보아주시였다.

경기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경기를 진행하게 된 근로자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 1절을 뜻깊게 맞이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위훈을 창조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빛내여갈 결의를 다시한번 가다듬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보람은 어디에

얼마전 우리는 한 독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흔히 생활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에게 취재길에서 만났던 김만유병원 심장외과 과장 조광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그를 알게 된것은 지난 1월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그를 기다리며 그의 사무실에 있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무실의 곳곳에 눈길이 돌려졌다. 책상우에 놓인 부피두터운 의학기술도서들과 금붕어들이 노니는 어항 그리고 여러개의 화분들과 한곳에 놓여진 정구채와 운동신... 보기에 그의 정서가 무척 다감한듯싶었다. 이런 생활속에서 혹시 그가 보람을 찾는것이 아닌지 하고 우리는 생각을 굴러였다.

그때였다.
그를 찾아 사무실에 한 손님이 들어섰다. 손님은 지난해 석달동안 심장외과에 입원해 있으면서 조광호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는 무역성 부원이었다.
손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지난해 5월초에 대동맥판륜부확장증(Marfan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병은 수술이 성과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그 경과가 잘 호전되지 않아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하던 내가 이제는 배구까지 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조광호선생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환자치료에 정말 극진합니다.》

그러면서 손님은 입원기간 그에 대해 듣고 체험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광호는 병원에서 일한지 30년이 된다.
그가 첫 수술을 진행할 때였다.

당시 승모판 협착증환자를 수술해야 했던 그는 긴장했다. 수술에는 폐쇄성승모판교련절개술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이란 심장의 한 부위를 썬 다음 좌심방에 넣은 손가락으로 판막밀장치의 융합개소들을 절개하고 수술기구를 리용하여 여러 기술조작을 단 몇초사이에 그것도 심장박동을 보호하면서 실수없이 해야 하는것이였다.

한초, 한초...
그는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발휘해나갔다.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다. 땀으로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웃음이 피여올랐다.

그는 이 수술을 위해 여간 품을 들이지 않았다. 환자에 대한 거듭되는 진찰과 앞선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 수술과정의 매 조작들에 정통하기 위한 모의동작을 반복진행... 그는 언제나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그 나날 수술장에서 17~18시간동안 수술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고 환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여 소생실에서 며칠밤을 밝힌 날들도 있었다. 또 한달가까이 병원에서 침식하며 병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과장이 된후에는 과의 행정사업, 의사, 간호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으로 더욱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한 그에게는 일화도 많다.
전공분야에서 세계적인 앞선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3개 나라 말을 배우느라 늘 손에 사전을 들고다니였다는 이야기, 수



조광호



수술을 마치고

술과정이 비록 어려워져도 환자들의 회복이 안전하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수술방법을 모색하느라 애썼다는 이야기, 명절이면 안해 김준희와 함께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던 보약이며 색다른 음식을 가지고 입원환자들부터 먼저 찾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는 그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람이 없이 2 000여명의 환자를 수술치료하였고 심장외과 부문의 유능한 의사들을 수십여명이나 양성하였다. 그리고 심장외과학분야에서 가치있는 5건의 도서와 30여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조광호에 대한 손님의 이야기는 무척 진지하고 구체적이였다.

이윽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우리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의사가가에서 태어났다.
10여년전 나는 어느 한 나라에 출장갔었는데 그곳 의사들은 심장판막을 수술해야 할 환자가 치료비를 적게 냈다고 하여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리용했던 낡은 인공판막을 넣어주고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생명을 책임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
자기 분야에서의 높은 실력,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 여기에 의사들의 본분이 있고 생활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굳혔다.
—보람, 이것은 그 어떤 취미나 정서의 향유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을 잘할 때 생기는 소중한 마음이라고.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환자치료에 정성을 바쳐간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지난해 기관차체육단의 선수들은 여러 국제 경기에 출전하여 수십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들은 국내경기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이룩한 체육성공에 토대하여 다시 한번 비약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체육단의 모든 선수들이 새해의 첫시작부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선수들의 앞장에는 일군들과 감독들이 서있다. 일군들은 한개 종목씩 맡고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한편 선수들의 훈련조건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들은 양각도체육촌에 갖추어져있는 지열에 의한 난방보장체계가 더 큰 은을 내도록 하여 겨울철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데 이어 실내와 야외육체훈련장에 여러가지 육체훈련기재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적극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선수들이 하루훈련계획을 어김없이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동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과 감독들은 모든 선수들이 자기들의 훈련과 경기기풍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빛난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종목별훈련장의 숙보관들마다에는 훈련에서 모범적인 선수들이 날마다 소개되고있다. 그들의 우수한 훈련성과는 일반화되고있다.

이 나날 체육단의 모든 선수들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 체육인의 참된 긍지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체육단에서는 력기와 체조를 비롯한 승산종목들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축구, 룡구, 배구와 같은 구기종목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이를 위하여 체육단에서는 감독들이 풍부한 체육과학지식과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구체적인 준비밀에 기술협의회와 경험토론회



창조물들에 비낀 건축가의 열정



송영일

우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우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그 창조물들마다에는 건축가들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공학과학연구원 부원장 송영일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다.

당시의 평양건설건재대학 건설공학부 건설구조과를 졸업한 때로부터 34년,

그 나날 그가 받은 발명권은 16개, 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과학기술성과도입증은 14개이며 창의고안은 6건이나 된다.

그 하나하나에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려는 그의 사색과 탐구가 비껴있다.

몇해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기본생산 건물들의 대형강철트라스를 보강해야 할 공사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이를 놓고 누구보다 생각이 많은것은 송영일이였다.

20m높이에 설치된 대형트라스에 실리는 지붕의 짐무게는 120t이였다.

트라스를 보강하자면 광채솜을 비롯한 지붕재들을 모두 걷어내야 하였는데 이 방법은 많은 자재

가 들뿐아니라 기일도 오래 걸리였다.

다른 나라들의 공법을 도입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수입하여야 했으므로 그것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가지 선진건설공법들을 연구하고 대형강철트라스에 대한 설계를 파악하였으며 현장에 나가 건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도 하였다. 또 여러 기술자, 로동자들과 토론도 거듭하였지만 좀처럼 좋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생산건물에 또다시 들러 보강해야 할 트라스를 바라보며 방도를 찾아 생각을 굴리던 그의 눈길은 100t천정기증기에 가닿았다.

기증기를 유심히 살펴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착상이 떠올랐다.

(만약 저 천정기증기의 대차틀에 유압차기 두대를 설치하고 내리누르는 힘만큼 트라스를 올리밀어 거기에 실리는 짐무게를 령상태에 가깝게 만든 다음 보강재를 삽입한다면...)

그렇게 되면 지붕을 벗겨내거나 값비싼 설비를 사오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그는 먼저 컴퓨터모의실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할수 있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올리미는 힘의 작용위치와 그 크기 등을 령학계산으로 확정해나갔다.

건설력사에 없는 공법을 창조한다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력학계산도 어디까지나 계산에 불과하다. 실천에서도 결과가 꼭 같을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고평쳤다.

그러나 정연한 그의 과학적론거는



세계패권을 쥔 목표를 안고

등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선수들의 육체기술적능력을 높이고 새 기술,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해 감독들이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나가게 하고있다.

체육단에서는 종목별감독들이 낯은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훈련조직과 지도를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휴식의 한때

그리고 종목별감독들이 겨울철훈련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금 감독들은 세계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하루훈련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그들은 체육과학연구사, 의료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뿐만아니라 효과적인 훈련방법과 수단들을 적극 찾아내고 선수들이 짧은 기간에 높은 육체적, 기술적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실력전을 경쟁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일 오직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체육단일군들과 감독, 선수, 연구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지금 훈련장들마다에서는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박사원생들의 논문지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가 내놓은 《경영수명을 고려한 트라스보강방법》에 의해 6개월로 예정된 기업소의 생산건물 1만㎡에 대한 트라스보강공사는 3개월로 앞당겨 끝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미 그는 주체89(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발한 공법들로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10여기 보이라우조물의 수십개의 주기등과 수백개 요소의 보조구조물보강, 수십기의 진동설비기초보강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강재, 로력, 석탄을 절약하게 하였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어느 한 공장의 화차전복기 기초보강, 류경호텔의 건물감정, 평양민속공원건설...

그의 과학연구성과가 도입되어 더 생산할 수 있게 한 전기, 절약한 세멘트, 강재, 자금, 로력 등을 계산해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수자에 달하고있다.

나라에서는 그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로 내세워주었다.

실천에 들어서면 대형건축물을 척척 다루는것과는 반대로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여가시간이면 음악감상의 세계에 잠겨있곤 한다. 그럴 때면 느닷없이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그다.

일본에서 태어난 송영일은 부모와 함께 4살때 조국의 품에 안겼다.

나라에서는 그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었으며 송영일이네 6형제모두를 대학과 전문학교에 보내주었다.

자식들이 대학과 전문학교로 떠날 때면 아버지는 늘 이런 당부말 하곤 하였다.

《너희들이 일본에서 그냥 살았다라면 이런 행운을 지냈겠냐.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

송영일의 형제들은 힘들고 지칠 때면 아버지의 이 말을 되새겨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그에게는 평양건축종합대학 박사원에 다니는 아들 송신명이 있다. 그를 유능한 건축가로 키우고싶은것이 송영일의 희망이기도 하다.

오늘도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의 창조적사색과 열정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고향소식

웃음넘치는 아동공원에서

상흥아동공원

얼마전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는 상흥아동공원에서였다.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더욱 그런지 공원은 온통 아이들의 세계였다. 색색의 운동모자를 쓰고 앞서 거니뉘서거니 하며 로라스케트타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빨강고 노랑고 파아란 미끄럼대며 그네를 타느라 왁자그르 떠드는 아이들, 그런가 하면 꼬니와 윗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치는 아이들...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화폭에 사진기렌즈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때였다.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나온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붙였다.

《정말 복받은 애들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런걸 꿈도 못 꾸었지.》

그러면서 로인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라가 해방(1945. 8. 15)되기 전 이 일대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는커녕 학교조차 없었다. 아이들의 웃이란 어른들이 입던 허줄한 베적삼을 줄인것이 전부였다. 바로 그러한 곳이 오늘처럼 변모하게 된것은 나라가 해방된후 좋은 세상을 만난 덕이다. ...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금 이 일대만 놓고보아도 하신과 중신, 상신 등가는 곳마다에 아이들의 글소리, 웃음소리 랑랑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이 있다. 거기에 책방과 도서관이 훌륭히 꾸려져 학생들이 배움의 노래를 더 활짝 펼칠수 있게 하고있으며 장산지구에 큰 규모의 체육관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의 체육열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는 여러곳에 배구장과 룡구장, 바드민턴장과 로라스케트장 등을 갖춘 공원들이 새로 건설되어 어린이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희열을 더해주고있다.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것이 변모되었다. 단지 아이들의 세계만이 아니었다. 상흥아동공원에서 한옆을 바라보면 산뜻한 외장재를 바른 다층살림집들이 구획을 지어 솟아있고 또 다른 옆을 바라보면 상점과 식당,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살림집들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저마끔 특색을 보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공원너머 멀리에는 우리 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을 보여주는 3대 혁명전시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자리잡고있어 구역안의 모습을 더욱 훌륭히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평양목재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등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틀지게 앉아있어 이곳의 약동하는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이런 생각을 몰아가느라니 우리에게는 문득 서성구역에 고향을 둔 중국 흑룡강성 가목사시에서

사는 김린숙동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해 9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는 몰라보게 변모된 고향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었다. 아마 그가 그후에 새로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돌아보았다면 더욱 놀라와했을것이다.

색타일과 경질유리로 외부를 특색있게 장식한 36층, 44층의 두개 호동으로 된 살림집에는 산책과 독서, 오락을 할수 있는 실내휴식터들까지 꾸려져있다. 그리고 매 세대당 200여㎡에 달하는 집들은 공동살림방, 부모방, 자식방, 서재, 부부방 등 여러칸으로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매 집마다에 침대, 책장, 장식장, 식탁, 신발장을 비롯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들과 TV와 랭온풍기, 문양고운 그릇들 등 생활용품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다. 이 모든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져 집집마다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리고있다.

우리는 상흥아동공원의 모습에서 좀처럼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마다, 어른들마다 노래 절로, 기쁨 절로 흘러나오는 모습은 그대로 김린숙동포의 고향, 아니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아래 나라의 그 어디서나 펼쳐지는 행복한 모습이였다.

우리는 언제나 고향을 그리며 사는 동포들의 심정을 담아 서성구역의 이모저모를 사진기렌즈에 하나하나 담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3대혁명전시관에서는 국내외의 전시, 전람회들도 진행된다.



253—32 West End Drive Little Neck, New York U. S. A. 권영수동생 앞

경사에 경사가 겹친 한해였다

영수야, 그동안 잘 있었니.

너의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조카 혁렬이네도 모두 잘 있으리라고 믿는다.

사실은 그사이 너무 소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위안해주어 내 마음도 가라앉아 오늘은 이렇게 펜을 들었구나.

조국에 있는 우리는 모두 잘 있다. 딸딸 련희네로부터 막내 창국이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렇게 펜을 들고보니 그사이 우리 집안에서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 편지 한장에 다 담을가 하는 생각부터 앞선다.

아마 너는 지난해 우리 집에 얼마나 경사로온 일들이 생겼는지 다는 모를게다.

지난해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이 나를 찾아왔더구나. 영문을 몰라하며 그를 따라갔더니 글썽 만수대의사당으로 들어서는것이 아니겠니.

얼마후 거기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었는데 글썽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영예로운 상이 수여되었단다.

그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저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아버지생각이 자꾸 나서 난 울기만 하였다.

늘 싱글벙글한 웃음으로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우리 앞길을 바로잡아주던 아버지,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바쳐야 한다며 그 길에 서슴없이 나선 아버지의 모습이 왜 그렇게도 생동하게 떠오르던지.

그날 나와 우리 자식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 맡은 일을 더 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둘째아들 창식이네 말이다. 딸 예령이가 지난해 5월 묘향산에 야영을 갔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구나.

꿈결에도 그리던 원수님을 너무도 뜻밖에 만나뵈게 된 야영생들은 눈물로 두볼을 적시고 발을 동동 구르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는구나. 무한한 행복에 겨워 눈물을 쏟고 있는 아이들에게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려서는 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고 한다.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고 떠나시는 원수님을 얼어질듯, 넘어질듯 따라서던 아이들은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는구나.

정말이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지난해는 경사에 경사가 겹친 한해였다.

혁렬이가 제일 고와하던 조카 은정이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고 또 셋째, 넷째네도 자식들이 다 인민군대에 나갔다가 당(조선로동당)원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막내 창국이의 딸 경령이는 소학교 2학년생인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에서 수재로 소문이 짜하다.

그사이 집안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영수야, 나도 이젠 나이가 80을 하고도 두살을 더 넘기고보니 어쩐지 너와 오빠가 보고싶고 조카 혁렬이도 무척 그립구나.

우리가 금강산에서 만났던 그때로부터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보니 보고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조국에 한번 올수 없겠는지. 남편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꼭 조국에 한번 오너라. 언제든지 그 문은 열려져있다.

상봉의 그날까지 부디 앓지 말고 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하련다.

평양시 서성구역 증신동 67인민반 리옥수언니로부터

인상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나는 조국을 방문하는 기간 평양의 많은 곳을 돌아보았다. 그 나날 가는 곳마다에서 절로 감동이 흘러나왔다.

문수물놀이장만 보아도 얼마나 희한하게 꾸러졌는지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물놀이장에는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과 각종 급양봉사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었다. 정말 안팎으로 모든 곳이 훌륭하였다.

실내물놀이장에 들어서니 파도가 씩없이 밀려오는 파도수조와 함께 초음파수조, 수영수조,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수조 등 각이한 모양의 수조들이 펼쳐져있었다. 그런가 하면 물매가 가파로운것과 완만한것, 고무배를 리용하여 내리는것을 비롯하여 각이한 형태의 물미끄럼대들이 곳곳에 세워져있었다.

이 방대한 물놀이장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일떠섰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놀라움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을 돌아보면서도 생겨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조국에서는 1~2년 지어 몇달사이에 인민을 위한 새로운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나는 이것이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조국의 건설속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돌아가면 조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동포들에게 잘 알려주겠다.

중국 길림성 통화현 리성자

고국의 밝은 래일을 보았다



평양방문이 처음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TV를 통하여 고국이 무척 아름답다는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국의 현실은 나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였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삶에 대한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거리는 무척 깨끗하고 건물들도 모두 현대적이였다.

고국인민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년간 많은 살림집과 현대적인 거리, 문화정서생활 및 봉사시설들을 일떠세웠다고 한다. 그 모든것을 1년남짓한 기간에 혹은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고 한다.

건설속도도 놀랍거니와 매 건물 하나하나가 세

계적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탄을 금할수 없다. 그 많은 건축물들중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미림승마구락부는 정말 멋있고 훌륭하였다.

창조물들을 보면서 나는 고국에서 경제건설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 그리고 후대교양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고국의 현실에 대해 지금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대서특필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고국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일떠설수 있다는것과 고국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다.

고국이 앞으로 더욱 튼튼번영할것과 고국인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질것을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고국에 자주 오겠다.

우즈베키스탄 김 스웨틀라나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재로조선국민중앙협회 대표단 —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은 재중동포들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도 참관하였다.

지난해 12월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재로조선국민중앙협회 대표단의 성원들이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동포들은 먼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다.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야외와 실내의 각종 물놀이수조와 물미끄럼대들, 휴식홀들, 실내체육관, 한증방들과 봉사시설 등을 동포들은 놀라움과 경탄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문수물놀이장에 매혹되어 여러곳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으며 물놀이장의 이모저모를 촬영기에 담기도 하였다.

다기능화된 문수물놀이장의 운동실에서 동포



문수물놀이장에서

들은 걷기운동기재며 달리기운동기재들을 리용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여러가지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재미역시 류다른듯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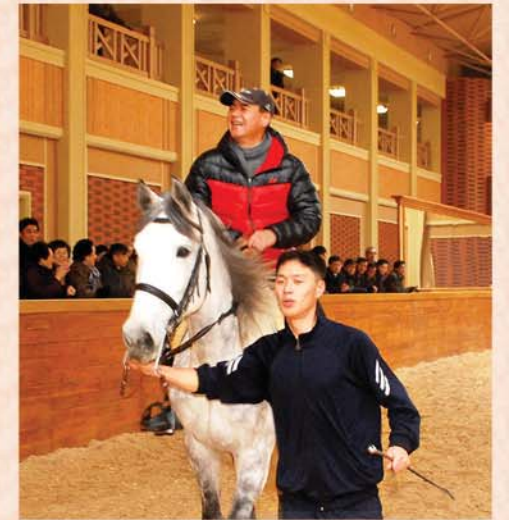
동포들은 세상에 자랑할수 있게 손색없이 건설된 미림승마구락부도 찾았다.

하나의 새 거리를 부감하는것 같은 느낌을 주는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본 동포들은 저저마다 승벽내기로 말을 타고 달려었다.

실내승마훈련장을 한바퀴 돌고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김철성동포는 《세계에는 제나름의 멋을 자랑하는 승마장들이 많지만 고국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승마장은 없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의 놀라움과 감동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더욱 커졌다.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는 재로동포들



말을 타고 달려보았다.

매 살림집면적이 200여㎡나 되고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살림집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을 보며 동포들은 이 모든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국의 인민중시정치아래에서만 있을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연주동포는 말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조국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조국의 건설속도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조건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 인민사랑은 이제 조국땅위에 더 희한한 현실을 펼쳐놓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여론과 다른 모습을 두고

얼마전 우리는 미국 뉴저지주의 리준무동포가 쓴 도서 《내 마음의 교향곡》에서 다음의 글을 읽게 되었다.

《나는 〈민족통신〉이 다른 〈특하면 이북을 썩는 버릇 좀 그만두자〉의 글을 통해 해외의 일 반대중동포들이 미국언론, 일본언론, 남조선언론들에 의하여… 이북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이 모저모를 알게 되었다.》

이 글을 보는 우리에게서 최근년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되새겨졌다.

두해전 2월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부회장 고대충동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북에 대하여 말하면서 거리에는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서있다, 사람들은 웃도 잘 입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이번에 나와 함께 북을 방문한 박 스웨플라나를 비롯한 동포들은 많은 곳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듣던것과 너무도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두달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신은미동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11년 10월 내가 북에서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들은 〈북에서도 웃네.〉 하고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그것은 남조선이나 미국에서 돌아가는 북에 대한 사진이란 전부 외곡된것뿐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의 의미가 새

삼스럽게 여겨졌다.

지난해 12월 조국을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사는 김송미동포는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등 세계일류급의 문화정서 생활기지에서 마음껏 락을 누리는 조국인민들은 머지 않아 문명의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누구든지 조국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제눈으로 직접 조국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한 동포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지난해 9월 14일 《통일신보》에 실리었던 재미동포 리경실의 글이 주목된다.

《서방이 〈인권문제〉를 놓고 공화국에 대한 협담을 늘어놓고있는것은… 치료비없이 생명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을 말할하기 위한 유치한 행위로 보는것이 틀리지 않을것이다. …

지구의 곳곳에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지는것도 레사로운 일이다. … 편견을 가진 어떤 나라들에서는 공화국에 이러한 〈자유〉가 없는것처럼 여론화하고있는데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들이… 집회, 시위, 결사, 신앙의 자유 등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는 목소리는 크게 울려도 서방에서처럼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즉 분노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리경실동포는 글에서 공화국은 《창건 첫 시기부터… 모든 시책을 인민의 요구

를 반영하여 세우고 실현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 일심단결을 이루어놓았다.》라고 서술하였다.

《하나의 대가정》, 이 말을 외워보느라니 지난해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동포가 쓴 글도 되새겨진다.

《북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깊숙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스스로 데려다 키우는 처녀들도 있고… 물에 빠진 이름모를 아이들을 건져내거나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것은 일상사로 되고있다. … 이런 인민을 어떻게 서방이 떠드는 〈전체주의희생물〉이라고 하겠는가.》

돌이켜보면 조국의 모습을 두고 많은 동포들이 목소리를 합치였다.

《조국에서 위성발사를 비롯한 새 소식거리가 생길 때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조국을 망탕 헐뜯고있다. 나는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본다.》 (일본 도쿄도 김주순)

《〈자유세계〉에서는 북에 대해 악담을 퍼붓지만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북은 희망을 안고 정정당당하게 성공의 길로 가고있다.》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교문 류태영)

… 진실은 가리우지 못하는 법이다.

본사기자 홍정혁

신비한 나라 조선

(전호에서 계속)

존엄을 파는 녀성들이 없다

세계에 매춘이 범람하고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남조선에서만도 국내외에서 젊은 녀성들이 몸을 팔며 살아가는 수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어떤 녀대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일본이나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지에 나가 몸을 팔며 등록금을 마련하고있다.

존엄과 청춘이 짓밟힌채 몇푼의 돈을 위해 남의 노리개가 되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문명과 《복지》를 외우는 자본주의실체이다. 이것이 그들의 《인권》이고 《자유》인것이다.

그러니 돈아래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삶의 뒤끝목에 물린 녀성들이 돈을 위해 몸을 내대는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불우한 운명을 걱정 해주며 매춘이 없는 사회를 그려온 나는 우연히 공화국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다.

참관로정을 마치고 호텔로 가는 길에 어느 한 건물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무작정 차를 세웠고 안내원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다.

건물은 뜻밖에 청년들의 과외 교양기지 청년중앙회관이였다.

컴퓨터, 약전, 자동차, 손풍금, 미술 등 24개의 각종 소조실들에서 과외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 하루일을 마친 근로청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있었다. 청년들의 궁전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였다.

나는 먼저 컴퓨터소조실에 들렀다. 녀성들이 많은것이 인상적이였다. 의아해하는 나에게 지도교원은 김정숙평양방직 공장 염색직장 처녀들이 자체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느라 저렇게 애쓴다고 말하는 것이였다.

?! …

몸을 파는 녀인들이 떠올랐다. 그 녀인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사회에 당당히 한몫하는 이 평범한 방직공들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을 생각할까.

아마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철저히 소멸되어가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임을 자인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한 나라—리상사회를 모욕하는 패권주의자들의 기만행위를 증오하게 될것이다.

《절망범죄》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전 남조선에서 열린 《잇달은 절망범죄에 대한 접근과 대책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병든 사회가 바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것을 《절망범죄》로 지적하였다. … 토론자들이 제시한 최선의 예방책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였다.

옳다. 범죄의 모든 원인은 개인만을 위한 사회제도, 돈중심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연된 끔찍한 참변들은 복수심리가 중첩되고 축적되면서 더 큰 사회악으로 번져가고있다. 따라서 강도와 폭력

은 불가항력적이다.

《절망범죄》가 성행하는 제도는 명백히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상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 사회적불안요소를 키워오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도에서 살인, 강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끊기지 않는것은 어쩌면 응당한 귀결이 아닐까.

《절망범죄》가 생겨나지 않는 곳은 공화국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면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아갈수 있는 모든 사회적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나라 즉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이다. 남을 위한 배려와 집단을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고 자기를 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조선의 특유한 정신적 자산이다.

지금 서방의 언론들과 반복적대의식에 감염된 학자들,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며 공화국을 헐뜯는 궤변을 쏟아내고있지만 전세계 정의를 사랑하고 각종 범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선을 주목하고 있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어나서부터 사회의 배려속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는 공화국, 여기에서는 범죄가 자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재미동포 리경실



《우리 부국장》

해외의 동포조직들속에는 《우리》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는 일꾼들이 적지 않다.

《우리 분회장》, 《우리 지부장》, 《우리 회장》...

그만큼 그들은 동포대중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있다. 그가운데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국장 김영희동포도 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지난해 7월 재중동포로병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모습이 선하다. 뺄스에 오르내릴 때에나, 참관지들을 돌아볼 때에나 70~80고령의 대표단성원들을 일일이 그리고 살뜰히 방조해주던 그, 늘 대표단성원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애로가 제기될세라 수첩에 꼼꼼히 적어넣으며 마음을 쓰던 그, 하기에 동포들은 한결같이 그를 《우리 부국장》이라고 불렀다.

《우리》, 이것은 비단 그의 친절한 행동만에 대한 평이 아니었다. 흔히 일꾼들에 대한 평은 그 일군의 실무에도 많이 기인되는것이다.

현재 김영희동포는 조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애국적인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총련합회 사명에 맞게 재중동포들이 스스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해마다 조국의 주요명절들을 맞을 때면 총련합회에서 조직하는 사진전시회, 도서전시회 등이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그 준비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고 각지의 지부들속에서 동포들의 모범적인 소행이 발휘될 때면 그것을 제때에 널리 소개해주고...

해야 할 사업이 아무리 아름차도 그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여간 품을 들이지 않고있다. 총련합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백두—한나》(<http://www.paekdu-hanna.com>)에 대한 편집사업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총련합회의 일꾼들인 한길수, 김길선동포들과 함께 편집하는 홈페이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 총련합회의 활동소식,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소식, 조국의 경제, 무역, 관광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식, 국제소식 등이 실리고있다.

그는 이 홈페이지에 대한 열람자수를 늘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편집물의 다양성과 시기성보장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 과정은 결코 험치 않다. 매일 새라새로운 편집물을 30~40건씩 실어야 하며 그중 2~3건은 그가 직접 글을 써야 했다. 그러한 그에게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는것도 아니다.

녀인의 반생은 부엌에서 흘러간다고 할만큼 집일에 많은 품을 돌려야 할 가정주부이지만 그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일하고있다. 때로 모자라는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밥술을 들면서도 편집안을 구상하고 TV나 출판물들을 보면서도 편집에 리용할 소식거리를 생각하곤 한다. 작은 문제에서도 의의있는 큰 종자를 도출해내곤 하는 그의 특기도 결국 그의 사색과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아마 지금까지 그가 수집한 자료, 집필한 글을 다 합치면 몇권의 책이 될지도 모를것이다.

그는 힘이 들 때마다 어제날을 추억하곤 한다.

한생 말보다 실천으로 애국의 삶을 빛내고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포조직의 믿음속에 대학시절에 벌써 동포청년조직의 일군이 되어 보람찬 나날을 보낸 자기의 청춘시절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세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몸가 가까이 뵈고 애국의 결의를 다지던 나날들...

그의 지정곡이 조국애로 일관된 노래 《오직 한마음》이고 보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애국의 삶, 이것이 그의 삶의 지향인듯싶다.

동포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자기의 생을 바쳐가는 일꾼, 그래서 동포들 누구나 그를 《우리 부국장》이라고 부르는것인지.

본사기자 조선일

중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 (2)

심장으로 체험한 조선의 참모습

평양방문기간 우리들이 받아안은 느낌은 새로운 충격의 련속이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돛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축포야회,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등 경축행사들은 선대 수령들의 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는 대정치축전들이었다.

자체의 현대적군사장비로 무장하고 강군으로 무진막강한 조선인민군의 위력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고국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을 보면서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고국의 일심단결을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탐과 개선문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곳을 참관하였는데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평양의 모습은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전후 평양의 복구건설을 도왔다는 최종수동지는 자기가 평양을 떠날 때 본것은 폐허로 된 거리와 폭격에 파헤쳐진 모란봉뿐이었는데 이번에 평양에 와보니 고층아파트들과 현대적건축물들이 얼마나 즐비하게 일떠섰는지 도시중심에 솟아있는 모란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우리는 당창건기념탑도 돌아

보았다.

등근떠안에 마치고 낮, 붓으로 형성된 탑은 조선로동당이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 선진투사들로 조직된 혁명적당, 대중적당이라는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심단결을 상징하고 있었다.

저녁에 주변을 산보하느라니 날이 어두운데도 붉은 넥타이를 매고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9~10살정도의 어린이들을 볼수 있었다. 이것은 고국이 어린이유괴와 같은 범죄행위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안정된 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독특한 선군정치로 세계최강의 군력을 다지고 전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되였으며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와 같은 국가적혜택속에 인민들모두가 행복을 누려가는 고국의 모습,

우리는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존엄으로 사회주의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는 고국이 머지않아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드

시 일떠세우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중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들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고국인민들의 모습에서 동포애의 정과 함께 어제날과 같이 중국인민지원군을 자기의 친혈육처럼 사랑하고있음을 감명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 60돛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행사에 주석단에 서계시다가 지원군로병들을 보시고 환하신 미소로 거듭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그 감격스러운 화폭에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원군로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중조친선을 중시하고계신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일이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가시어 모주석의 아들 모안영을 비롯한 지원군렬사들에게 화환을 진정하고 추모하



천리마조선의 세력사 (1)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조국인민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 사회주의전면적건설단계의 과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전쟁시기 모든것을 파괴하고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인 미제에게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떠서기 위한 투쟁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기본적으로 닦아놓기 위한 벽찬 투쟁으로 이어져있었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려는 천리마의 정신은 당시 조국인민들의 생활신조였다.

자금과 자재, 로력 등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3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43(1954)—주체45(1956)년)과 5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46(1957)—주체50(1961)년)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강선제강소(오늘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6만t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였다. 이 기적은 천리마속도를 낳았다.

강선에서 떠오른 천리마속도에 발맞추어 온 나

라가 일떠섰다. 황해제철소(당시) 로동계급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미제가 파괴한 50t짜리 평로보다 배나 큰 100t짜리 평로를 일떠세우고 첫 쇠물을 뽑아냈다. 수도건설자들은 7 000세대분의 자재로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한해동안에 지어 평양속도를 창조하였고 덕천과 기양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천리마》호 트랙도르와 《승리—58》형 자동차를 제작하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천리마정신으로 일관된 비약의 속도와 투쟁방식이 있어 조국인민들은 100년이 아니라 전후 6~7년밖에 안되는 동안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완전히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전쟁전에 비하여 몇배나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였다.

이 나날에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한 사회주의 기초만이 다져진것이 아니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생산관계의 개조가 불가능하다.》느니, 《현대적농기계가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할수 없다.》느니, 《사회주의적개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

시였다. 이것은 중국인민과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조선인민과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의 표시였다. 우리들이 귀국하자 고국방문 소식과 전승 60돐 경축행사소식을 듣기 위하여 친지들과 전우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련이어 찾아왔다. 우리들은 수없이 찾아오는 그들을 위해 좌담회와 간담회 등 여러 모임을 조직하였다.

감상토론들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공감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들을 앞을 다투어 초청하였다. 중국과 조선인민은 일제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나날에 피를 나누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 형제적우의와 전통을 창조하였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중조 두 나라 인민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선군조선의 강성국가건설

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며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꽃피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중조우의는 압록강의 흐름처럼 영원하며 만대에 푸를것이다.

위대한 조선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재중 동포지원군로병대표단 일동
2013년 8월 30일

적개조정책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으며 동요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술적개조에 앞서 농업협동화운동을, 도시에서는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는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생산협동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하여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술이 뒤떨어진 조건에서도 전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조국은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에 들어섰다. 인민들은 7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50(1961)—주체56(1967)년)을 완수하여 나라를 자립적토대가 튼튼히 선 현대적공업과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건설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에는 극도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인민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주체51(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을 받들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을 걸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던 미제를 세계면전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로기지를 가지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주체46(1957)—주체59(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 1%의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공업은 해방전 주체33(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12일동안에 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주체53(1964)년 2월 25일)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수준을 비상이 높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주체56(1967)년 4월)를 비롯한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문학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어 조국은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기술과 보건, 체육 그리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이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천리마조선으로 만방에 존엄을 떨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인민에게 천리마의 나라를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정은명

상식
수명이 짧은 지역과 긴 지역의 식생활에서 차이점

한 연구사는 수명이 짧은 지역과 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첫째로, 쌀을 많이 먹고 편식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둘째로, 수명이 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콩을 일상적으로 먹고있다.

셋째로, 장수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남새를 많이 먹고있다.

넷째로, 물고기를 많이 먹고 남새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

다섯째로, 바다나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속에서는 뇌

졸증이 적고 장수자가 많다.

이러한 조사자료로부터 출발하여 장수를 위해서는 식생활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로, 쌀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배불리 먹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고기, 물고기, 알류 또는 콩을 매일 먹어야 한다.

셋째로,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한다.

넷째로, 기름을 조금씩 매일 먹어야 한다.

다섯째로, 바다나물을 일상적으로 먹어야 한다.

호박속의 통찜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이 봄계절에 민족의 향취가 한껏 풍겨나는 건강보양음식을 한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가운데 동근 호박속에 통찜이 척 들어앉아있는 음식을 보거나 맛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아마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찜을 어떻게 호박속에 통채로 들어앉히며 그 맛은 또 어떠할런지 우리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음식감으로는 깨끗이 털을 뽑아 손질한 찜 한마리와 모양이 곱고 잘 여문 조선호박(참호박) 한개를 먼저 준비합니다.

여기에 떡호박(살이 많고 매우 달한 호박의 한가지) 100g, 기름(정제) 50g, 술(40%, 료리용) 20g, 흰포도술 30g, 양파 50g, 진채 30g, 밀가루 20g, 소금 10g, 후추가루 2g,



조선속담 (무분별)

—개 못된것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제구실도 못하는자가 못된것만 함을 비겨이르는 말.
—모기보고 칼빼기
보잘것 없는 작은 일을 놓고 업

청나게 큰 대책을 세움을 비겨이르는 말.
—바위에 닭알 부딪치기
도저히 승산이 없는 무모한것을 함을 비웃어이르는 말.
—설달그믐날 시루연으러 다니기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는 설달그믐날에 시루를 얻으러 다닌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벌려놓고 공판들이고있는 경우를 비웃어이르는 말.

맛내기 15g도 함께 준비합니다.

우선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홍당무와 양파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놓습니다. 그리고 진채를 잘게 썰니다.

다음 속을 깨끗이 손질한 찜을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 흰포도술, 술(40%), 기름과 이미 썰어놓았던 홍당무, 양파, 진채를 두고 두시간가량 재워놓습니다.

가마에 기름을 두고 달군 다음 찜을 색이 나게 튀깁니다. 기름에서 튀겨낸 찜을 재워놓았던 음식감과 같이 은지를 씌워 로에 넣고 200° C에서 속까지 익게 굽습니다.

그동안 참호박을 손질하고 호박즙을 만들어놓습니다.

참호박은 통찜을 들어앉힐 그릇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호박은 꼭지가 달린 옷부분을 뚜껑으로 쓸수 있게 동그랗게 따냅니다. 이때 껍질이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호박속을 깨끗이 파낸후 안이 텅 빈 호박을 15분동안 끓는 물에서 데쳐냅니다.

그것을 방안온도에서 서서히 식힙니다.

다음은 호박즙을 만듭니다.

떡호박살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가마에서 쪄낸 다음 분쇄기에 넣고 갑니다. 약간 달아오른 볶음판에 기름을 적당히 두고 밀가루를 닦습니다. 여기에 분쇄한 호박살을 넣고 물을 약간씩 넣으면서 저어주면 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구워낸 찜을 호박속에 통채로 넣습니다.

구운 찜을 참호박속에 통채로 넣을수 없으면 몇군데 토막을 내어놓고 통찜의 형태를 맞추어 넣을수도 있습니다. 호박속에 구운 찜을 넣은후 그우에 호박즙을 친 다음 뚜껑을 덮고 다시 200° C의 로에서 15분간 구워냅니다.

이렇게 하면 료리가 완성됩니다.

독자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박속의 통찜이 보기에다 먹음직스럽지만 맛은 더 좋으며 먹고나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것으로 하여 해외동포여러분속에서 인기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고계시다싶이 찜은 고기중에서도 제일 으뜸으로 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기살이 연하고 맛이 아주 고소한데다가 봄과 가을에 섭취하면 몸안에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을 보충해주고 회충구제에도 유익한것이 찜이기때문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조선민족은 산과 들에 자라는 찜을 특별

히 아름답게 여기어왔으며 결혼식상에도 한쌍의 찜을 마주 놓아 신혼부부의 행복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설명절날 아침에 놓치지 않고 들고있는 떡국에도 찜고기가 꼭 들어가곤 합니다.

《찜대신 닭》이라는 조선속담에도 있듯이 우리 선조들이 찜고기를 모든 고기류들가운데서 으뜸에 놓았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찜은 조선각지와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에 퍼져있습니다. 원래 찜이 없던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퍼진 《고려찜》은 19세기말부터 옮겨진것이라고 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편편히 이어나가고있는 민족성계승문제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선민족 매 성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 조선민족은 온 세계가 부러워 바라보는 제일 강한 민족으로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술한 호박속의 통찜을 한번 가정들에서도 잘 만들어보십시오.

아마 가정의 소박한 명절음식상이나 풍성한 연회상의 한가운데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입니다.

글 분사기자 연 옥
사진 분사기자 최은혁

유모아

눈이 앞에 있기에

선생 : 《너희들 생각해 보았느냐? 어째서 번개가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야 우리소리가 들리느냐?》

학생 : 《그거야 간단한 리치지요. 사람의 눈은 귀보다 앞에 있거든요!》

중세회화의 대가 김홍도

《사람은 정직해야 해》

민족의 문화적재보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킨 인물들 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였던 김홍도도 있다.

김홍도는 그림을 통하여 당대의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렸다. 그는 조선화의 고유한 화법을 잘 살린 18~19세기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화가이다.

그의 자는 사능, 호는 단원, 서호, 고면거사 등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그림그리는 일을 맡아하는 관청인 도화원의 화원이었던 그는 연풍현감의 벼슬도 지내었다.

그는 당시의 진보적인 화가였던 김홍환(1742—1789년)에게서 그림을 배워 15~17살에 벌써 인물풍속화에서 두각을 나타

냈다. 걸작으로 일러오는 《군선도》, 《취생도》, 《선동취적도》 등은 그가 20살전에 창작한 작품들이다.

특히 실학사상의 영향밑에 도식화된 량반사대부들의 낮은 화풍을 깨뜨리면서 점차 당대의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인 풍속화창작의 길을 개척하였다.

근로하는 평민들의 창조적으로동과 일상생활의 일단을 진실하게 반영한 대표작으로서 《대장간》, 《집짓기》, 《베짜기》, 《활쏘기》 등을 들수 있다.

또한 김홍도는 인물풍속화뿐 아니라 초상화에서도 대가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상작품으로는 리명기와 합작한 《서직수초상》이 있다.

김홍도는 힘있고 간결한 필치로 실경산수화의 걸작들

도 남기었다.

그의 산수화들은 모두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민족적정취, 질은 향토미를 풍기고 있으며 심오한 사색과 풍만한 시정, 자연의 아름다움속에 안기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화폭으로 일관되어있다.

《금강산사군산수도》, 《구룡폭》, 《나루배》, 《소림명월도》 등이 그 대표작이다.

김홍도는 화제의 선택과 주제내용에서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 그리고 수묵을 위주로하여 그린 당대 화단의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약점이 있으나 18~19세기 미술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대표적인물로 우리 나라 회화사에 기록되어있으며 오늘날도 그의 작품들은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전해지고있다.

역사연구소 연구사 차광혁



단원도



집짓기



약초를 캐고서

김홍도가 창작한 작품들의 일부

성현(1439—1504년)이 열너덧살에 잡혔을 때였다.

하루는 소꿉친구 방옹과 함께 빈집에서 글을 읽고있는데 방옹이 성현에게 말했다.

《야 이거 졸음이 자꾸 오누나. 조희네 집에 가서 능금이나 좀 먹고 오는것이 어때? 응? 빨리 가자.》

방옹이 자꾸 부추기자 성현도 그의 말에 응했다. 두 친구가 동무인 조희네 집에 달려가 보니 빨갛게 익은 능금이 나무에 다닥다닥 달려있는것이 보이었다.

그런데 대문이 굳게 닫겨있어 들어갈수도 없고 한참이나 주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짚으로 들여다보니 종들이 대문안에서 술을 먹으며 벽적 떠들어대고있었다.

이제나저제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두 친구는 두덜거리며 비를 그으려고 문앞의 큰 해나무밑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큰 말 한필이 매여있었다. 작은 말도 서너필되었는데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씨, 이토록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아 소나기까지 흠뻑 들쓰게 했으니 우리가 말을 훔쳐가지고 가서 이 집 식구들을 혼내우자!》

성현이도 머리를 약간 끄덕이는것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성현의 친구 방옹은 원래 장

난질을 몹시 즐기는 소년이었다. 그와 함께 다니느라면 엉뚱한 일도 많았고 재미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둘은 인차 큰 말 한필을 타고 내가로 나왔다가 글읽던 집에 들어다 매는데 방옹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불쑥 《난 이 말을 잡아먹겠어.》라고 하는 것이었다.

성현은 깜짝 놀랐다. (친구를 놀래워주려고 시작한 놀음인데 이제 와선 말을 잡아먹겠다고 하다니.)

혹시 룡질로 그러는가 하여 방옹을 쳐다보니 어느새 절구공이까지 찾아들고 말앞에 다가가는 것이었다.

《아니, 그러면 안돼. 한번 혼내주면 되지 죽이기까지 하는건 지나친것이야. 그래선 도적놈과 다름없어. 사람은 정직해야 해.》

성현은 다급히 방옹을 말리며 그에게서 절구공이를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방옹은 막무가내였다. 그가 쳐든 절구공이가 말의 미간을 겨누고 막 떨어지려는 순간 몸을 날린 성현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건 룡이 지나친거야. 친구들끼리 그래서 되겠니?》

방옹도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했던지 절구공이를 내던지고 제풀에 주저앉았다.

다음날 성현과 방옹이 집마

당에 나와있는데 조희가 찾아왔다. 눈이 쑥 들어가고 그사이 살도 쑥 빠져보였다.

방옹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물었다.

《너 얼굴이 몹시 상했구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조희가 풀풀거리며 대답했다.

《어제 고모가 시골집에 가려고 말을 매어놓았는데 그만 도적놈이 말을 훔쳐갔어. 온 집안이 발각 뒤집히고 모두 떨쳐나서 곳곳에 찾으러 다니는걸이야. 그런데 종시 없구나.》

조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근심어린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다.

이때 갑자기 마구간쪽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조희가 와닥닥 놀라 일어섰다.

《아니,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

방옹은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성현과 눈을 맞추었다. 조희는 급히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자기가 그토록 애써 찾던 말이 바로 거기에 매여있었다. 조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너털웃음을 터뜨렸고 친구들도 모두 까르르 웃어댔다.

결국 성현의 정직한 마음에 의해 말은 죽음을 면하고 주인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 * *

원산칠엽나무



원산칠엽나무는 모양이 아름답고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으므로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오늘 현재까지 나무는 근 100년간 자랐다.

나무의 높이는 18m, 밑동둘레는 2m, 가슴높이둘레는 1.8m, 나무가 직경은 10m이다.

나무는 약 5m높이에서 줄기가 세갈래로 갈라지면서 둥근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학병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은 조국통일의 근본립장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가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오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근본립장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외세에게 자주권을 내맡기면 민족의 운명이 몰락당하고 나중에는 망국노의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이 근 70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더없는 민족적수치이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민족의 고통은 더욱 증대되며 결국 외세에게만 어부지리를 주게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가 하루속히 자주적립장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것은 미국의 침략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전조선을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야망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침략적인 외세에게 민족문제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외세의 간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근본장애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조선민족자신이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하나로 된 민족임을 자각하고 하나의 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손을 굳게 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 조국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여들 아무런 명분도 주지 않게 되며 통일

문제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립장이라면 외세공조는 사대와 외세의존사상, 동족대결관념에 뿌리를 둔 반민족적 립장의 발로이다.

외세공조는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역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설 대신 《국제공조》에 매달리면서 외세에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사이에 신뢰를 쌓고 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북과 남은 이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있다는것은 현실로 뚜렷이 확증되었다.

6. 15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뭉치고 통일애국으로 온넛을 불태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앞당기는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야말로 숭고한 애국애족의 립장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민족자주,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켜나갈 때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얼룩진 민족의 수난사는 끝장나고 조국통일의 서광은 기어이 밝아올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영성

2중적범죄, 과거부정행위

력사란 과거만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래일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와 일본은 지난날의 최악을 성근하게 뉘우치기는 커녕 감추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비렬하게 놀고있다.

일본정객들부터가 과거범죄행위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두고 다른 령강으로부터 아시아 나라들을 《해방》시켜준것이며 따라서 아시아인민들은 그 《혜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련행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으며 목숨을 앗아간것이 《해방》으로, 《혜택》으로 될수는 없다.

특히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감행한 성노예범죄는 무엇으로써도 변명하거나 정당화할수 없는 최대의 인권범죄이다.

그런데 일본은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라느니,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다》느니 뭐니 하며 피해자들의 피명이 든 가슴에 칼질을 하였다. 그리고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으며 배상문제는 1965년 남조선과의 《청구권협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지어 수상까지 공식석상에 나서서 성노예

문제는 조용한 마당에서 력사가나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느니,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간 증거가 없다느니 하면서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거기다가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은 미국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그 무슨 《서명운동》까지 벌리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력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일본수상 아베는 저들의 해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후 수급전범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전범자들에게 대한 판결은 전패국에 대한 전승국의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수상으로 있으면서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지 않는데 대해 한탄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벗어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취임한지 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창피도 수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죄를 죄로 갚는 2중적범죄행위로밖에 볼수 없다.

19세기 후반기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개시한 일본은 1905년에 《한일협상조약》(《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그리고 중세기적인 착취와 략탈, 살륙을 감행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징병, 징용으로 강제련행하여 그들의 청춘과 희망,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다. 그

리고 짐승도 낮을 붉힐 성노예적 방법으로 녀성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았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된 조선인청장년들은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였으며 100여만명이 학살되었다.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최악중에서도 가장 비렬하고 치명리는 범죄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이다. 부녀자들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략치, 유괴하여 끌어가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죄행에 대하여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두고두고 죄값을 치르어야 한다.

그러한 법적, 도덕적의무앞에 성실하게 나서서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방으로 변호하며 한사코 정당화해나서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인류는 침을 뱉고있다.

이전 도이칠란드대통령은 《과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번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말하였다.

오늘의 일본의 현실에 적중한 말이라고 볼수 있다.

일본이 제아무리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려 해도 그런 식으로는 력사와 인류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일본의 과거범죄를 지워버릴수 없다.

일본은 군국주의부활책동에 환장이 되어 부질없이 놀아떨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력사를 옳바로 대해야 한다.

거기에 일본의 진정한 미래가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강 국

유 적

량천사의 대응전

량천사는 753년에 처음 세웠는데 후에 여러차례에 걸쳐 고쳐지었다.

량천사의 대응전은 정면 3칸(11. 6m), 측면 3칸(7. 35m)이며 흘림기둥우에 포식두공을 짜올린 합각집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대응전은 1636년에 고쳐지은것인데 현재까지 전해지고있다.

대응전의 밑단은 화강암을 길이 1. 5~2m의 크기로 잘 다듬어 정교하게 쌓았다. 대응전의 두공은 바깥 5포, 안 7포로 하면서 여섯가지종류의 두공을 다양하게 배열하여 건물 네면의 미관을 잘 조화시켰다.

정면두공에는 봉황새대가리를 새겼고 모서리기둥에는 대가리를 길게 내민 룡을 붙였다. 대응전정면 가운데간의 네개 문짝에는 문살대신 꽃무늬를 새겼다. 가운데 두 문짝의 무늬는 그 좌우의것보다 더 화려하다. 집안에는 화려한 소란반자를 뒀다.

대응전의 금단청은 아름다운 비단무늬로서 크고 작은 원형, 3각형, 6각형 등 기하학적무늬들을 꿸고 묶어서 그것을 련속 반복한 형식이다.

오른쪽 두공사이벽에는 여섯장면으로 된 단청그림을 그렸다.

첫째 장면에서는 큰 소나무밑에서 젊은 남자가 거문고를 타는데 그 오른쪽하늘에는 학이 날고있으며 둘째 장면에서는 한 남자가 외금강 구룡폭포와 비슷한 폭포를 바라보고있으며 셋째 장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백발로인의 말을 듣고있다. 넷째

장면에서는 세사람이 층암절벽의 경치를 구경하고있고 다섯째와 여섯째 장면에서는 백발로인을 앞에 세우고 여러 사람이 걸어가면서 산천을 구경하고있다. 정면의 액방, 두공사이벽에는 부처와 룡, 봉황새,련꽃, 학, 범, 구름 등이 그려져있다. 이 가운데서 액방의 구슬을 가지고노는 청룡과 황룡그림은 매우 생동하다.

대응전안의 두공사이벽들에는 모두 단청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들은 당시 불교의 부패상과 중들의 겉과 속이 다른 부화방탕한 생활을 보여준다.

대응전의 경사천정에는 단집 뒤면외의 벽면들에 민족악기를 연주하고 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는 남녀를 그렸다. 남자 13명, 녀자 9명인데 괴리, 나팔, 통소를 부는 사람들, 가야금, 비파를 타는 사람들, 신이 나서 쟁파리, 징, 북을 울리며 장고를 치는 사람들이다. 과일쟁반을 두손으로 받쳐든 한 녀인과 날개옷을 입고 춤을 추는 두 녀인의 그림도 있다. 이 그림들은 단청그림이라기보다 하나의 훌륭한 회화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새들이 날아든다 본사기자 김성철

현대적인 인민극장이며 고층, 초고층의 살림집들이 저마끔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평양의 창전거리이다.

그 모습에 끌려서인가, 이 거리의 복받은 주인들이 부러워서인가 새들이 날아든다. 마치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문명을 노래하러는듯싶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